

일자리 · 먹거리 융합 개발협력 추진

농진청-농어촌공-산업기술진흥원, 협약 체결

K뉴딜 연계 개발협력 통해 개도국 녹색전환 선도

농진청(청장 허태웅)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K-뉴딜 글로벌 확산을 위한 농·산업 분야 개발협력(이하 ODA) 업무협약(MOU)을 21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농업분야 ODA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와 산업분야 ODA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석영철)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농업기술 ODA를 지원하는 농진청과 농업기반 ODA를 담당하는 농림부 그리고 산업·에너지 ODA를 담당하는 산업부가 농·산업 분야 ODA의 전주기 협력을 위해 뜻을 같이 하게 된다.

이날 협약은 우리 정부(관계부처 합동)가 발표한 K-뉴딜 글로벌화 전략과 제3차 국제개발협력종합기본계획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세 기관은 농업·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K-뉴딜과 연계한 융복합 패키지 ODA 등을 통해 개도국의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친환경 지역개발 지원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

촌진흥청은 선진농기술을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관계시설 등 농업 기반조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신재생 에너지 기반 지원과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에 따른 첫 시범사업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ern African States)의 일원으로 아프리카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나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농촌지역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높은 에티오피아 및 세네갈 등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국정기조와 연계해 신남방 신북방 지역으로의 확대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진청은 아프리카 비 연구소(AfricaBe)와 협력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동으로 우수 비 품종을 선발하고 있으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가나 센터에서 비 적응성 검정 및 생산성 증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세 기관의 협업을 통해 가나 비 농업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농촌진흥청), 농업



K-그린뉴딜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농·산업 국제개발협력(ODA)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린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반 정비(농어촌공사), 에너지·농업 기계화(KIAT) 등을 통해 가나의 비 생산량 증대로 가나 비 자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자립 지원과 함께 한국과 K-뉴딜의 글로벌 확산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청 허태웅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통해 협력의 뜻을 함께해 준 세 기관에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이번 업무협약은 농촌진흥청의 중점사업을 기반으로 정부 국제개발협력계획 및 그린뉴딜 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타분야 연계 패키지 지원을 통해 개도국 수요가 많은 농업 분야와 연계한 융복합사업 추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스마트팜 연구개발 본격화

오늘 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온라인 설명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 이하 농진청), 재단법인 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단장 조성인, 이하 사업단)은 22일 오후 2시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에 선정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제도 및 운영·관리 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업단 및 사업 소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변경 내용, 사업관리 및 운영방안, 사업비 사용방법, 스마트팜 연구개발(R&D)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연계방안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날 사업설명회는 연구팀 간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및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며, 2021년에는 48과제, 406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28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스마트팜 실증·고도화 분야에서 2세대 스마트팜 모델의 확립 및 품목(작목, 축종)별 실증, ICT 기자재 고도화 등 총 26개 과제(189.6억원) ▲차세대 융합·원천기술 분야에서 생육정보의 자동계측과 환경·농작업·경영정보 등의 통합 분석,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 개발, 온실 그린에너지 이용기술 개발 등 총 22개 과제(216.3억원)다.

농식품부·농진청·과기정통부 등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앞으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연구현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씨 없는 수박 품질 향상 착과·비대관리 주의해야

수꽃 제거·초기 비대기 양분 관리 '중요'

씨 없는 수박은 전국적으로 전북도가 가장 많은 320ha(전국 60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식이편이성으로 인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고품질의 씨 없는 수박생산을 위해 착과 및 비대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요즘 정음, 고창 지역의 수박 재배 하우스에서는 5~6월에 고품질 씨 없는 수박을 출하하기 위해 수분 작업이 한창이다.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수박도 착과기와 초기 비대가 환경변화에 특히 민감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수박을 잘 관리해야 맛있는 명품 씨 없는 수박을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농업기술원에서는 씨 없는 수박의 착과기 및 비대기 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착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이 생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임화분으로 인공수분 시 씨앗이 생기는 원인은 근처에 있는 수꽃의 화분이 화분매개곤충에 의해서 수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순 제거 시 수꽃을 같이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좋으며, 그러지 못할 시에는 인공수분 2~3일 전에 실충제를 살포하고 하우스 측창과 입구에

방충망 등을 설치해 화분매개곤충 등의 침입을 차단해야 한다.

두번째는 수분관리를 잘해야 한다. 토양의 수분상태를 관찰해 건조할 경우 수정 4~5일 전에 관수를 실시해야 한다. 간혹 착과율을 높이기 위해 수정 전에 영양생장 세력을 약하게 할 목적으로 토양을 건조하게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수분부족으로 화분의 발생이 원활하지 않아 착과율이 저하될 수 있다.

세번째는 온도관리를 잘해야 한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보온관리에 차지 소홀해질 수 있으나 수정기와 초기 비대가에는 15°C 이상의 온도를 확보해야 착과율이 향상되고 기형과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시설 내에 부직포 등의 보온자재를 비치하여 급격한 온도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기 비대기 영양관리를 잘해야 한다. 웃거름 주기는 착과가 70% 정도 이루어진 시점부터 시작하여 착과 후 15~20일 이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웃거름은 질소와 칼륨을 4~7일 간격으로 3~5회에 걸쳐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박신=정양원기자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 선도 중추

전북생진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새출발

전북도의 농생명·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의 선도 중추기관으로 거듭난다.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전북도정 핵심인 스마트농업, 스마트농생명 산업 육성과 정부의 그린바이오 융합 산업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형 뉴딜의 역점 추진과제인 '그린뉴딜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커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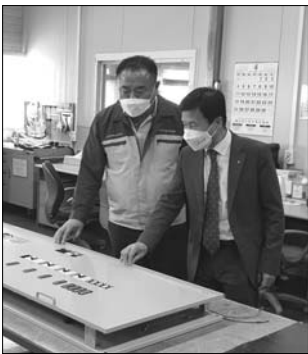
바이오진흥원은 지난해 정부 정책 및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중장기 발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고객이 먼저 찾는 농생명·바이오 혁신성장 전문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농생명산업 미래가치 선도 기업혁신 생태계조성,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체계 확립 등 3대 추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해 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경

진하고 있다. 한편, 진흥원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라북도에서 실시하는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차지하며, 전북의 농생명·바이오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인 기관으로서의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전

북의 농생명 특화자원을 기반으로 바이오 융합 기술혁신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와 그린바이오 신산업 창출을 위해 다양한 국책사업 발굴과 기업 지원을 통해 기관의 업무영역 확대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장기요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ESG 경영실천 중기 방안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가 연일 중소기업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우리지역 기업과 활발한 소통 행보를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지난 20일 군산시 산북동에 소재한 제재목 생산업체인 백산목재(대표 김민숙)를 방문해 기업 경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1일에는 장애인기업의 일자리창출과 복지향상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사)꿈드래징에인협회(대표 양현섭)를 방문,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도내 기업과 동행할 것을 밝혔다.

현장방문에서 장 본부장은 "이제 ESG경영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ESG경영을 실천하는 우리지역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국민연금 연구과제 공모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국민연금 연구과제 대(대)국민 공모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창의성 있는 연구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9회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민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변화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방법의 개선방안 연구 등 5개 과제를 정규보고서, 수시과제 등으로 발간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공모전에는 연금제도연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해 국민 누구나 연구과제를 응모할 수 있다.

선정과제는 오는 7월 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김윤성 기자

코로나19 글로벌 시장변화 대응

전북중기청, 2차 온라인 마케팅 화상세미나 27일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매년 금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수출시장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1년 2차 해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화상세미나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8개 지방청 간 협업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 30일 1차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소외플랫폼 활용 세미나'에 이은 2차 세미나다.

세미나는 글로벌 오픈마켓 플랫폼 이베이(e-bay)를 활용한 시장 확대 전략과 판로 개척 방법에 대해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수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들은 선착순 300명까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https://tinyurl.com/mssjcnbuk210427>)으로 진행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매일 1회씩 화상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오픈마켓(아마존, 일리버라, 쿠팡 등)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및 소셜 미디어(링크드인, 유튜브 등)를 통한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종욱 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의 트렌드와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되는 온라인화에 발맞춰 교육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글로벌 온라인 마켓 선도기업 입점과 활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현대차, 2021년형

쏘나타 센슈어스 출시

현대자동차는 한층 감각적이고 역동적인 디자인을 적용하고 트림을 단순화한 2021 쏘나타 센슈어스'를 출시하고 21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 쏘나타 센슈어스는 기존 쏘나타 센슈어스 1.6 터보 모델의 디자인을 기술력 2.0 모델에 확대 적용한 점이 특징이다.

전면부는 보석의 원석을 기하학적 형태로 깎아낸 듯한 형상의 파라메트릭 주얼(Parametric Jewel) 패턴이 적용된 유광 블랙 칼라의 그릴이 강렬한 첫 인상을 준다.

측면부와 후면부는 쏘나타 센슈어스 전용 ▲블랙 유광 아웃사이드 미러 ▲리어 디퓨저가 더해진 범퍼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구현했다.

현대차는 2021 쏘나타 센슈어스 엔진별 트림을 ▲모던 ▲프리미엄 플러스 ▲인스퍼레이션 등 3종으로 단순화해 고객이 보다 쉽게 트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주=이중복 기자



송호기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사장(가운데)과 간담회 중인 장애인 직원들.

'차별없는 직장문화' 조성 앞장

전기안전공, 장애인의 날 맞아

근무여건 개선 등 위한 간담회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차별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공사는 지난 20일, '제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와 공사 장애인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미술치료 스트레스 해소법 강의 수강과 함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박지현 사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 모두 국민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소중한 공사의 가족"이라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확대와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앞선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공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 14명을 특별 채용해, 배우와 스태프 모두 장애인으로 구성된 '유니버설 안전에 솔선수범'을 운영 중이다.

유니버설 안전에솔선수범은 중증 장애인의 직무를 공영문화 분야까지 확장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윤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